일본 중견 면방의 신방적 시대로의 발전상 (8)

도호 텍스타일의 사례 - 원사 가공의 독자성으로 차별화 소재가 히트

도호 텍스타일(東邦 Textile)도 지난 수년 동안에 일본의 여러 방적 기업 중에서 뛰어난 개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방적 회사가 되었다. 도호 텍스타일은 일본과 중국에 있는 생산 거점들이 각기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 담당케 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공세를 펴나갈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의 생산 거점인 기후(岐阜)현에 있는 이비가와(揖斐川) 공장에서는 2004년에 시장으로부터 복합 소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데 대비하여, 혼면 라인을 늘려 링 정방기 5만 2천추로 소로트 생산 체제를 만들었다.

개발 부문에서는 컴퓨터 제어의 슬럽사 "칵테일(Cocktail)"이 데님용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멀티카운트 슬럽사(multi-count slub yarn)로서 일반적인 슬럽사와는 좀 다르다. 일반적인 슬럽사는 기본이 되는 실을 바탕으로 하여 슬럽으로 군데군데 굵게 만들어 형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칵테일"은 기본이 되는 실의 굵기를 자유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 여러 가지 표정의 실을 만들어 냄으로써 염색 가공이나 제품 세탁 등의 후가공으로 입던 옷 같은 느낌이나 빨래 표백한 느낌도 표현이 가능하다. 바로 이와같이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러한 "칵테일"이 발전된 소재로서 "칵테일 리버스(reverse)"와 "칵테일 패치워크(patch-work)"도 개발되었으며, "칵테일"과는 또 다른 소재감이 용도의

폭을 넓히고 있다.

도호 텍스타일은 데이진 파이버(帝人 fiber)와 협동으로 적극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기로 하고, 단섬유에 강한 도호 텍스타일과 장섬유에 강한 데이진 파이버가 서로 유통 경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폴리에스터와 도호 텍스타일의 면、모달을 혼방한 “에렌”이나 데이진 파이버의 흡수、속건성 기능이 있는 폴리에스터 단섬유인 “칼나바”와 “바이로프트”나 “마이크로 리오셀”, “마테니” 등이 면과 혼방된 소재 등의 컬래버레이트(collaborate) 복합 소재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전략도 상하이 사무소를 주축으로 중국의 협력 공장을 사방팔방으로 링크시켜, 실부터 제품까지 일관된 OEM 비즈니스를 현지 전략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방 안에서 빨래를 말릴 수 있는 소재인 “풀수잉”, 텀블러(tumbler)로 건조할 수 있는 태、형태 안정 가공, 발열、보온 특수 혼방사 “마테니 히트”의 특수 가공, 원사 생산도 순조롭게 진전되기 시작하여 제품화율을 15% 이상으로 올리려는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특수 가공 제품은 중국에서 일관 생산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유통 시장이 머지않아 개방될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더욱 거래선에게 큰 매력이 될 것이다.♣